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매칭'

내일 광주시청 시민홀…기업 40곳 전문상담 부스 운영
동반성장몰·가치장터·가치사세몰 등 온라인몰 입점도

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26 사회연대경제 우선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광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와 공공기관의 가치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 간 구매 연계의 장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26 사회연대경제 우선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지방조달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립 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은 물론 한전KPS,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포함한 22개 기관과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40여 개사가 참여한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은 '1대1 맞춤형 우선구매 매칭 상담'이다.

주최 측은 기관별 구매 수요 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기업과 기관 간 매칭을 완료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기업별로 최대 4개 기관과 15분씩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구매 계약과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몰, 가치장터, 가치사세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광주지방조달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상담 부스도 마련해 조달 등록, 공공구매 절차, 판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청 시민홀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홍보전시관이 조성된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매칭데이는 지역 공공기관이 가치소비를 실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발굴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구매 연계 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영암서 '현대 N 페스티벌' 스피드 축제 열린다

20~21일 국제자동차경주장서 4개 종목 83대 참가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원메이크(One Make)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 2라운드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대 N 페스티벌'은 동일 차종이 참가해 차량 성능보다 드라이버의 실력과 경기 운영 전략이 승부를 가르는 원메이크 대회다.

고성능 브랜드 N 차량을 활용해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철학이 반영된 행사로, 2003년 출범한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 이후 2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총 6라운드 중 2라운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개 종목 83대가 참가한다. 경기는 길이 3045m인 국제자동차경주장 상설트랙에서 진행된다.

직선 구간과 중·고속 코너 등 11개 코너에서 가속 성능, 코너링, 타이어 관리 등 치열한 레이스 전략을 선보인다.

순수 전기차 종목인 '그란 투리스모 eN1'은 아이오닉 5 N 기반 경주차가 참가하는 레이스다. 전기 파워트레인의 즉각적 응답성과 고출력 주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금호 N1', '넥센 N2', '넥센 N3' 종목에는 아반떼 N 차량이 참가해 내연기관 레이스 특유의 주행감을 선보인다.

2026 현대 N 페스티벌 대회1-그리드워크.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프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N 차량에 동승해 서킷 주행을 체험하는 'N 택시'를 비롯해 서킷을 둘러보는 '서킷 사파리', 경주차와 드라이버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리드워크'가 운영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키즈 안전교육과 키즈 전동카 체험 프로그램, 직접 그린 그림으로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이 운영된다.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모터스포츠를 쉽고 친근하게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대회는 유튜브와 네이버스포츠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부대행사 참여 방법과 대회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 누리집과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전 영업점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계층 보호 위해 9월 말까지 개방

전남농협이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도내 전 영업점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한다.

농협 전남본부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과 고령층, 지역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남본부는 지역 곳곳에 위치한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영업점에는 무더위쉼터 안내 배너와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쉼터에는 생수와 음료를 비치하고 부채, 쿨스카프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도 마련해 이용객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 양파즙을 제공하는 등 소비 촉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폭염은 농업인과 고령층에게 직접적인 건강 위협이 되는 만큼 농협이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내 전 영업점 무더위쉼터가 주민과 농업인들이 잠시 더위를 식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전남본부는 매년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을 비롯해 농촌 일손돕기, 재해복구 지원, 취약계층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지역 대표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16일 광주 광산구 동곡농협 주유소 뒤 미나리 선별장에서 농업·농촌 발전과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행복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

교육 넘어 취업까지…K-콘텐츠 실무 인재 육성 본격화

콘진원,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사업 추진
300명 규모…기업에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윤지,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분야 인재의 산업 현장 적응력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총 300명 규모의 인턴십 연계를 통해 청년 인재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콘텐츠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콘진원은 창의인재동반사업, 뉴콘텐츠 아카데미(NCA),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양성, 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송영상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게임인재원 등 다양한 인재양성사업 수료자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인재양성 사업 수료자는 약 5000명에 이른다.

콘진원은 이들 수료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와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계를 지원해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콘텐츠 분야 기획·제작·유통 기업으로, 콘진원 인재양성 사업 수료자와 인턴십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108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인턴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콘진원은 기업별 희망 직무와 분야를 사전에 조사해 기업과 인재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턴십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기 인턴십 지원을 넘어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의 산업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의 채용 연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콘진원은 교육 이수자 수요조사부터 참여기업 모집, 기업과 인재 연계, 인턴십 운영,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인턴십 종료 이후에도 취업 연계를 지원해 청년 인재의 안정적인 산업 진출을 돕고 콘텐츠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상반기 신규직원 94명 채용

블라인드 채용 통해 지역인재 선발…내달부터 현장 배치

농협 전남본부는 16일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2026년 상반기 전남농축협 6급 신규직원' 94명을 최종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축협 신규직원 채용은 지난 3월 31일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채용은 연령·학력·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합격자들은 7월부터 전남지역 농·축협에 배치돼 금융사업과 경제사업(구매·판매·마트·가공 등)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농협의 정체성과 신용·경제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규정 교육,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구성된 2주간의 신규직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농협 가족이 된 신규직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행복 나눔 캠페인

담근 양파김치 취약계층 전달

농협 광주본부는 16일 광주 광산구 동곡농협 주유소 뒤 미나리 선별장에서 농업·농촌 발전과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행복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과 이동운 동곡농협 조합장, 동곡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생산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를 돕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특히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농협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지역 농산물인 양파와 열무를 활용해 양파김치와 열무김치를 담갔다. 정성껏 준비한 김치는 관내 소외계층과 고령 농가 등 70여가구에 전달됐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이번 나눔 행사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소 재배농가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소외계층을 보듬는 현장 중심의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유럽 사로잡는 'K-푸드'

aT, 엔믹스와 유튜브 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유럽 지역 내 K-푸드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유튜브)를 활용한 K-팝 연계 홍보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aT는 유럽 내 인지도가 높은 K-팝 아티스트 NMIXX(엔믹스)와 협업해 멤버들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공연 투어 일정 중 한국 농식품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일 NMIXX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콘텐츠는 NMIXX 멤버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다양한 K-푸드를 활용해 글로벌 MZ세대의 입맛을 겨냥한 이색 레시피를 직접 조리하고 시식하는 과정을 담았다. 떡볶이·핫도그·옥수수칩을 조합한 '이색 분식 세트'부터 호떡과 인절미 아몬드를 곁들인 'K-스트리트푸드 세트', 곤약젤리와 오미자에이드를 활용한 'K-이너뷰티 세트' 등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대거 선보였다.

특히 채식 선호도가 높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트렌드에 맞춘 '비건 만두'와 '김치전' 등을 함께 소개해 채식주의자(Vegan)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영상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유럽 현지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들로 구성해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바로 따라 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